

담양군, 코로나19 유행 대비 협력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한 협력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는 현재 독감과 같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5월 1일 위기단계 조정(경계→관심) 이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8월 말을 지나 추석 연휴 때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군은 지난 26일 보건소장 주재로 군 담당 부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재가복지협회, 맞춤형복지서비스기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군은 관계 기관과 함께 ▲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 중심 발생 상황별 대응 총괄 ▲중증 환자 발생 시 적기 치료를 위한 기관별 대응체계 마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 취약 시설 수시 현

장점검 및 관리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등 주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는 관내 취약 시설 감염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감염병대응팀 외 2팀, 11명)을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고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집중관리 및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 차단코자 한다. 또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적절한 수급 관리를 위해 지정된 관내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 기관으로 치료제를 전환 배치하고, 질병관리청에 수시로 부족량을 요청하는 등 수급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학교 개학과 추석 명절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기에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성진 기자

장성농업기술센터 직원역량강화 보고회

장성군이 21일 농업인회관에서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직원역량강화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과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의 체계적인 실증과 확산기반 운영,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가기관이다.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건립되며, 9월 4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농업인은 49세 미만 지역 농업인으로, 장성 농업인의 9.2%를 차지한다. 군은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정예인력양성 전문교육 △창업 활성화 지원 등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고 있다.

안평쌀 재배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단지화해 시범재배 중인 ‘안평쌀’은 지난해 조곡 138톤 분량을 생산했으며, 미국 텍사스에 수출하는 등 판로 확대

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특화작물 재배 추진현황도 이목을 끌었다. 장성군이 신소득 아열대작물로 육성 중인 레몬은 삼서면 재배단지에서 12농가가 3.8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경옥고’의 주원료로 알려진 약용작물 지황은 북이·북하면 일원에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13농가 8.1ha 규모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첨단농업기술관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현황도 보고됐다. 지역 내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되는 장성 농산물의 잔류농약 사전 검사·분석을 수행하는 곳으로,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밖에 챔버형스마트팜교육실증센터 건립 공모,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공모 추진 계획 공유와 분야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로 등유 구매비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2024년 9월 6일까지 등유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카드,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지원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난방용 등유를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카드가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31만 원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주유소 또는 유류 판매소에서 난방용 등유 구매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적극 발굴해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요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등유·LPG 등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최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군 산하 공직자와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생명나눔 하절기 단체헌혈 실시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최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군 산하 공직자와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군 산하 공직자, 농협, 체육회, 새마을, 영광시니어클럽 등 100여명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영광군은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연 2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주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군민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해 보람차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금번 헌혈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행사를 실시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률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주택 화재 주민 위로

폐기물 처리·임시 거처·구호 물품 등 지원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주말 주택 화재 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경 노안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창고가 전소됐다.

해당 주택엔 80대 여성 주민이 홀로 살고 있으나 화재 발생 당시 주택에 있지 않았기에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나주소방서는 30여명의 인력과 진화 장비를 동원해 20여분 만에 불을 꺾으며 화재 원인, 재산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

과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시했다.

시는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가구에 주택 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최대 500만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비(최대 200만원)와 재해구호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불의의 사고 가운데도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다”며 “어르신인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올해부터 노후 아파트까지 확대해 일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네...